

엑스포드론축구대회, 달구벌 달귀

전주시, 대구 'ICT융합엑스포' 서 개최... 이동식경기장 등 지원·드론 퍼포먼스 등 즐길거리 제공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전주시가 두 번째 드론축구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달구벌을 뜨겁게 달궜다.

전주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엑스코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17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에서 '엑스포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공식 드론축구 전국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6월 일산인텍스 '로보유니버시티&드론' 행사장에서 열린 '제1회 전주시장애 전국 드론축구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엑스포 기간 중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드론축구대회에는 전주시 선수단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총 8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시는 대회기간 동안 이동식 경기장을 대여·설치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대회 수상팀에는 우승팀 200만원 등 총 35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특히, 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흥미진진한 드론 퍼포먼스와 제품 전시, 체험 행사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최첨단 드론제품과 기술들로 매료시킬 예정이다.

대회 첫날에는 이른 시간부터 선수 및 관계자들이 조종하는 드론축구공들이 LED조명을 빛내며 대회장 상공을 날아다녔으며, 화려하게 번쩍이는 드론축구공이 팔뚝을 흔들 때마다 관중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세례와 환호가 쏟아졌다. 또, 전시된 드론 제품들과 비행중인 드론축구공은 행사장을 찾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또, 개막식에서는 드론축구 시연을 선보이면서 엑스포 첫날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주시는 14일부터 3일간 대구엑스코 전시장서 진행되는 '2017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에서 '엑스포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드론축구는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너비 80cm 정도의 원형 골대에 집어 넣는 신개념 ICT스포츠 경기로,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해 11월 열린 '한·중 3D프린팅 드론 산업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지난 2월에는 전주시 드론축구선수단이 창단됐으며, 서울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과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드론페스티벌 IN 울산, 청주 드론의향연 등 전국 각종 행사에서 드론축구 경기 및 이벤트가 펼쳐지며 드론축구 저변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나아가, 시는 지난날 31일 행정안전

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주시 드론축구가 지방 우수시책 사례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시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정식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축구 동아시아 대회와 아시안컵 개최, 드론축구 월드컵 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를 향한 원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드론축구 저변이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경제 파급효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드론축구 공 제조기업 5개 및 유통회사 2개사

와 전국시관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국 200여 개의 드론매장에서 드론축구공을 공급·판매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에서 전주시가 개발한 드론축구가 주연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대한민국 드론축구선수단이 월드컵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주만의 차별화된 드론 경쟁력으로 레저스포츠와 산업화 투트랙을 통하여 드론산업을 세계적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나들목 가족공원, 주말 캠핑장으로

시, 16일~10월 말까지 10개 팀 토·일 시범 운영

전주나들목(IC) 가족공원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주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정오까지 전주CBS 방송국 뒤 나들목 가족공원을 캠핑장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나들목 가족공원은 전주시민들이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캠핑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로 주목을 받아왔다. 또, 나들목 가족공원 주변에는 어린이 교통공원도 있어 캠핑도 즐기고 교통안전체험도 즐길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매주 10개 팀을 신청 받아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시설개선 및 향후 캠핑장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기간 동안 음수대 설치 후 예산을 확보해 취사장 및 샤워장 등을 신축하고, 대피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캠핑장 야영장업으로 등록을 마친 후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063-281-228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학원생 성추행 50대 학원장사 집행유예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원생들을 성추행한 50대 학원장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정운현 판사)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사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에 학원 로비로 수강생 B양을 불러 대화를 나누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2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돈 잃은 상습 도박 일당 검찰송치

돈 잃은 상습 도박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상습도박혐의로 A(29)씨를 구속하고 B(41)씨등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4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빌린 원룸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선별하거나 승패 결과를 장부에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각자 분담했다.

원룸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아 이들의 작업장을 덮쳤다.

조사결과 이들은 3주간 4억여원을 도박에 썼지만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기자

고창 부안파출소 주차장서 녹슨 포탄 6발 발견

14일 오전 9시10분께 고창군 부안면 부안파출소 주차장에서 녹슨 81mm 박격포탄 2발과 76mm 대전차 포탄 4발이 발견됐다.

녹슨 포탄은 파출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군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포탄이 6·25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포탄에 뇌관이 없어 폭발 우려는 없지만 수거해 정밀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부안 S중 교사 자살 관련, 검찰 수사개시

고 송모 교사 유족, 부교육감 등 10명 고소... 도교육청 "사실 밝히는 계기 되길"

전라북도교육청은 부안 S중학교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개시 통보서가 부안교육지원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각각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고 송모 교사의 유족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유족은 김규태 부교육감 등 10명을 고소했다.

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

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할 자료는 피해 여학생 7명의 학교폭력 확인서, 송교사의 소명기록 및 음성파일 등 총 17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필

요한 중요 자료들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 "인성인권부(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했다"면서 "이는 관련 업무 담당교사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위축시키고 학생 생활 지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차량 2대 훔친 무면허 커플 덜미

탈 목적으로 차량 2대를 훔친 무면허 2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A(23,남)씨와 B(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오후 11시50분께 정읍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안에 키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차량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흘 뒤인 지난 10일 오후 11

시계 훔친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자 인근에 있던 차량 1대를 더 훔쳤다.

훔친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기 위해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 달았다.

하지만 차주인이 자신의 차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정읍에서 전주로 오는 과정에서 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







